

태권도·소림무술 만난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 맞아 특별 프로그램 31일~9월 1일 진행

태권도의 고장 무주에서 '태권도와 소림무술'이 만난다.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를 맞아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8월 31일과 9월 1일 저녁 5시 30분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된다.

31일에는 개막식 식전 공연으로 무주군 학생·실버태권도시범단과 중국 등 봉사 소립시무술시범단 시범이 펼쳐진다. 9월 1일에는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싸울아비' 팀과 소림무술단의 봉술과 취권 등의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다.

태권도와 소림무술의 만남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꿈의 성지, 무주군이 소림무술의 고장, 중국 하남성 등봉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올해는 영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브리튼즈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베저를 획득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싸울아비' 팀이 함께 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반딧불축제 관계자는 "태권도와 소림무술의 만남은 태권도 성지 무주를 알리는 기회이자 관람객들에게 바진감 넘치는 태권도의 매력과 감동을 인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태권도의 고장 무주에서 '태권도와 소림무술'이 만난다.

"이들 공연 외에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태권도 퍼포먼스들을 마련했으니 놓치지 마시라"고 전했다.

8월 31일(17:30~)과 9월 1일(18:30~)에는 무주군민과 함께하는 '태권락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는 무주군이 지역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무주군 태권도 도장 선수단과 무주군 학생

태권도 시범단, 우석대 태권도시범단이 '태권도'와 '반딧불이'를 활용한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9월 4일 "글로벌 태권데이"에는 저녁 7시부터 전주대 '싸울아비' 팀과 '비보이', '케이팝 퍼포먼스', EDM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9월 8일 폐막식 식전 공연에서도 '싸울아비' 팀을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목재산업 미래 엿보다

전춘성 군수,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 견학

전춘성 진안군수는 산림정책의 미래 사업 구상을 위해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2024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를 찾았다.

'2024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는 신립청 주최,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목재 가공,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국내외 20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목재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물론 산림과와 건축 팀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산림 사업 추진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진안군 산림조합에서는 송윤섭 조합장을 비

롯한 직원들도 동행해 박람회의 내용을 진안형 목재 관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귀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은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어 풍부한 산림 자원이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목재산업 박람회 견학이 진안군 목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 만큼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관련 업체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산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DJ와 함께하는 물벼락 페스티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서로를 향해 날리는 물길이 한낮의 더위를 맑끔히 식혀줄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더위와

스트레스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물벼락 페스티벌은 어른, 아이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도 시원한 물총 싸움을 즐기면서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등나무운동장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프로그램을 비롯해 갖가지 환경과 문화예술 체험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품질 진안콩 생산 '최선'

진안군, 논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실시

진안군은 관내 논콩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논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를 통해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적기 방제를 통해 수확량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진안군의 콩 재배면적은 약 430㏊로 전략작물금 및 벼 재배면적 감축 등으로 매년 15% 이상 재배면적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체계적인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해 관내 논콩 재배단지 농업법인 2개소(문수빈, 백운농협) 30㏊ 재배



노린재 페로몬 트랩 설치 모습

리 노린재 등의 발생 밀도를 조기 예찰 후 적기에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제 시기에 고민이 많았던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매년 달라지는 기상 여건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린재 트랩 지원으로 콩 주요 해충인 노린재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 진안콩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김남수 장수군의원, "한우 가격 폭락 지원 대책 마련"

지난 27일 장수군 의회(의장 최현주) 제365회 임시 회에서 김남수 의원(사진)은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남수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한우 가격의 하락과 사료값의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가를 위해 장수군의 지원을 촉구하며 △한우 농가 사료 구입비 지원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축산분야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의 기시적인 지원책 마련을 기대하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한우 농가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이정영)는 지난 28일 산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13명이 참석해 협의회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 하는 등 산서면 교육 발전을 위한 뜻을 모은 가운데 최훈식 군수가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최길환 산서면장을 자문으로 위촉해 행정과 교육협의체, 지역사회로의 연계성을 도모했다.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기로 입을 모았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 협의회 활동을 통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으로 교육복지 혁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